

심층분석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디지털·데이터

2026.04.14

1장. 산업 분석: 증권업·금융IT는 지금 구조적 전환점에 있다

1-1. 산업 정의와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한국 증권업은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되는 산업입니다. 이 법은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을 하나의 법적 체계로 통합하여 '금융투자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증권사의 핵심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고객의 주문을 받아 거래소에 전달하고 체결하는 위탁매매(brokerage)입니다. 둘째, 자기 자본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입니다. 셋째, 기업의 IPO·유상증자·M&A·PF 등을 주선하는 투자은행(IB) 업무입니다. 넷째,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산관리(WM, Wealth Management)입니다.

규제 체계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FSC)가 정책 수립과 인가·등록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FSS)이 일상적 감독과 검사를 수행합니다.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한국거래소(KRX)가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 시장을 운영하며, 2025년 3월에는 한국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개장하여 복수 거래소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이 증권의 예탁과 결제를 담당하고, 코스콤(KOSCOM)이 거래소 전산 시스템과 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60개 증권사가 영업 중이며,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10곳입니다. 종투사는 발행어음 업무, 종합투자계좌(IMA) 운용, 기업신용공여 확대 등 일반 증권사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사실상 한국형 투자은행(IB)의 지위를 갖습니다.

1-2. 시장 규모와 성장 궤적: 숫자로 보는 증권업

2024년 증권업 전체 총자산은 755.3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습니다. 자기자본은 91.8조 원으로 8.7% 성장했고, 당기순이익은 6.9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3% 급증했습니다. 이 성장은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해외주식 거래 폭증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는 2020년 이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며, 증권사 수수료 수익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온라인 수수료가 건당 0.015~0.04% 수준인 반면, 해외주식은 0.25% 내외로 6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이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한때 5,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미국 주식 거래 열풍이 지속되면서, 상위 10개 증권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이 6.96조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9.9% 증가했습니다. 운영업수익 구성을 보면 위탁매매가 약 44%, 자기매매가 약 33%, IB가 약 17%, 자산관리가 약 6%를 차지합니다. 주목할 점은 자기매매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대형 증권사들이 발행어음·IMA 등으로 조달한 대규모 자금을 운용 부문에 투입하면서 나타난 구조적 변화입니다.

1-3. 디지털 전환이 만드는 5대 메가트렌드

한국 증권업은 지금 다섯 가지 거대한 구조적 전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들은 서로 독립적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IT/디지털/데이터 직무의 존재 이유를 규정합니다.

첫 번째 메가트렌드는 지점의 소멸과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패권 전쟁입니다. 증권사 오프라인 지점은 2020년 989개에서 2025년 1분기 731개로 5년 만에 258개(-26%)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기간 증권사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영업 인력)도 약 3,3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점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MTS 앱입니다. 고객 접점이 물리적 창구에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완전히 이동하면서, MTS의 사용자 경험(UX)·기능·안정성이 곧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디지털·데이터

증권사의 경쟁력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상위 5개 증권사의 전산운영비는 2020년 2,035억 원에서 2024년 3,516억 원으로 73% 급증했습니다. MTS 월간활성사용자수(MAU) 경쟁에서는 키움증권 영웅문 S#이 약 265만 명으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삼성증권 mPOP이 약 209만 명, KB증권 M-able이 약 208만 명, 미래에셋증권 M-STOCK이 약 192만 명으로 상위 4강을 형성합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삼성증권 mPOP이 UX 전면 개편 이후 MAU 1위를 탈환하는 등 순위 변동이 활발하며, 토스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수수료 완전 무료 전략으로 젊은 투자자층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가트렌드는 시가 증권업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챗봇 도입 수준을 넘어, 증권사의 사업 모델 자체를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IPO 밸류에이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5시간 걸리던 분석을 1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KB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양방향 생성형 AI 서비스 'Stock AI'를 출시하여 고객이 종목에 대해 자연어로 질문하면 실시간 데이터 기반 답변을 제공합니다. NH투자증권은 AI 기반 차트 분석 서비스 '차분이'를 런칭하고,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협업하여 글로벌 금융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AI 기반 자산배분 서비스를, 신한투자증권은 자체 금융특화 LLM을 개발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이 흐름을 뒷받침하여, 2024년 12월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 상반기에 금융 통합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금융 AI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KCMI)은 2025년 보고서에서 금융권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모델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감독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었으며, AI 개발비 투자 규모가 증권사의 미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가트렌드는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입니다.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비유동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여 소액 분할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 제도는, 증권업의 상품 범위 자체를 혁명적으로 확장합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025년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삼일PwC는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가총액을 2024년 34조 원에서 2030년 367조 원으로 전망하며, 맥킨지는 글로벌 토큰화 자산 시장이 2030년까지 2조 달러(약 2,60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SKT의 'NFI' 컨소시엄, NH투자증권의 'STO 비전그룹', KB증권의 'ST 오너스' 등이 메인넷 개발을 사실상 완료한 상태이며, STO 전담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만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곧 IT/디지털 인력의 역량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네 번째 메가트렌드는 넥스트레이드(NXT) 대체거래소의 출범입니다. 2025년 3월 한국 최초의 대체거래소로 개장한 NXT는, 거래시간을 기존 정규장 6.5시간에서 프리마켓·애프터마켓을 포함해 08:00~20:00까지 12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거래 가능 종목도 초기 6개에서 2025년 말 796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핵심은 SOR(Smart Order Routing, 최선집행주문시스템) 의무화입니다. 모든 증권사는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KRX와 NXT 양쪽의 호가를 비교하여 최선의 가격으로 체결되도록 자동 라우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증권사 주문관리시스템(OMS)의 전면 개편을 의미하며, IT 인력의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실시간 데이터 처리 역량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다섯 번째 메가트렌드는 망분리 규제 완화와 클라우드 전환의 가속화입니다. 기존에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했으나, 금융보안원과 금융위원회가 AI 워크로드를 위한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증권사들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비중요 업무부터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는 AI 모델 학습·추론에 필수적인 GPU 클러스터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IT 안정성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증권사 IT 부서는 이 규제 변화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프라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4. 가치사슬(Value Chain) 재편과 핵심 수익 지점의 이동

전통적 증권업 가치사슬은 고객 획득 → 투자 상담·자문 → 주문 접수 → 주문 관리(OMS) → 거래소 체결 → 청산·결제(T+2) → 수탁·자산 보관 → 사후 관리(리포트·세금 신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은 이 사슬의 모든 단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오프라인 PB의 역할을 AI PB·로보어드바이저·챗봇이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들오피스에서는 AI 기반 증권신고서 자동 작성, 알고리즘 기반 리스크 관리, 실시간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STO),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실시간 데이터 레이크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 수익 지점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탁매매 수수료가 절대적 수익원이었으나, 수수료 무료화 경쟁으로 그 마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증권사의 핵심 수익원은 크게 세 가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첫째, 해외주식 브로커리지입니다. 건당 수수료가 국내(0.04%) 대비 6배 이상 높은 0.25% 수준이어서, 해외주식 거래량 증가가 직접적으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발행어음·IMA를 통한 자기자본 활용 운용수익입니다. 중투사만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자기자본 200%까지)과 2025년 도입된 종합투자계좌 IMA(자기자본 300%까지)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채권·부동산·대체투자 등에 운용함으로써 이자마진을 창출합니다. 셋째, IB 수수료입니다. IPO·M&A·PF 주선 수수료와 인수 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며, 대형 딜의 경우 건당 수백억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5.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 구도

국내 증권업의 경쟁 구도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명확히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사로는 한국투자증권(11.16조 원), 미래에셋증권(10.41조 원), NH투자증권(8.61조 원)이 있습니다. 자기자본 5~8조 원 규모의 대형사로는 삼성증권(7.64조 원), KB증권(6.69조 원), 메리츠증권(6.5조 원 추정)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이 중형사 그룹을 형성합니다. 이 경쟁 구도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투자증권이 2024~2025년 사이 공격적 자본 확충(2024년 7,000억 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2025년 9,000억 원 유상증자)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역전하고 자기자본 1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IMA·발행어음 한도 확대와 직결되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1-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증권업은 단순한 금융업이 아니라, AI·블록체인·클라우드·데이터 분석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테크 인텐시브(Tech-Intensive) 산업'으로 전환 중입니다. 면접에서 "왜 증권사 IT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단순히 "금융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증권업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5대 메가트렌드(MTS 경쟁, AI 인프라화, STO, 복수거래소, 클라우드 전환) 속에서 IT/데이터 역할이 사업 모델의 핵심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구조적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자기자본 1위를 기반으로 IMA·발행어음이라는 고유한 자금 조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장. 경쟁사 비교 및 한국투자증권 포지셔닝

2-1. 5대 증권사 디지털 전략의 본질적 차이

증권업의 디지털 전략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 사가 집중하는 '디지털의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경쟁 구도를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디지털·데이터

KB증권은 "AI 퍼스트"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증권사입니다. 2024년 3분기 누적 개발비가 1,154억 원으로 업계 압도적 1위이며, 금융위원회의 AI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3건이나 받았습니다. Stock AI라는 증권사 최초 양방향 생성형 AI 서비스를 출시했고, AI 기반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KB증권의 디지털 전략은 "AI를 증권 서비스의 모든 접점에 내재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모회사인 KB금융지주의 대규모 IT 투자 역량이 뒷받침됩니다.

삼성증권은 "UX 우선" 전략으로 MTS 경쟁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mPOP 앱은 2024년 하반기 전면 개편 이후 MTS 점유율 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관적 인터페이스와 편의성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습니다. 삼성증권의 차별점은 삼성그룹 IT 계열사(삼성SDS, 삼성전자)와의 기술 시너지에 있습니다. 다만 AI 서비스에서는 KB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대비 후발주자의 면모가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WM + AI 콘텐츠" 전략을 추구합니다. 자기자본 10.41조 원으로 2위이며, 해외 17개 거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AI 측면에서는 IPO 밸류에이션 자동화 시스템이 대표적이며, STO 분야에서는 SK와 합작한 'NFI' 컨소시엄의 중심축으로 활동합니다. M-STOCK 앱은 해외주식 거래 기능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MAU 경쟁에서는 상위 3사에 비해 다소 열세입니다.

NH투자증권은 "IB 강점 + AI 리서치" 전략입니다. 전통적으로 IB 부문에서 업계 최강으로 평가받으며, 이를 AI 기반 리서치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전략을 전개합니다. AI 차트 분석 서비스 '차분이'를 출시했고,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협업하여 글로벌 금융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나무앱은 젊은 투자자 유치에 일정 부분 성공했으나, MTS MAU에서는 상위 4강에 들지 못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경쟁 구도에서 "자본력 + IB +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삼각 전략으로 차별화합니다. 자기자본 1위라는 절대적 체력 위에, IB 역량(IMA 1호 인가)과 개방형 기술 플랫폼(Open API, AIR)을 결합한 포지셔닝입니다. 이 전략의 본질은 "자본의 크기를 기술로 효율화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IT/디지털/데이터 인력이 한국투자증권에서 갖는 전략적 중요성의 근거입니다.

2-2. MTS 경쟁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위치와 과제

한국투자증권의 MTS 앱('한국투자' 앱과 온라인 전문 브랜드 '뱅크스')은 일부 시점에서 MAU 80만~120만 수준으로, 상위 4사(키움 265만, 삼성 209만, KB 208만, 미래에셋 192만)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의 고객 기반이 전통적으로 고액자산가(HNWI)와 법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리테일 고객의 절대수에서는 열세이지만, 1인당 평균 자산 규모에서는 업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투자증권의 MTS 전략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고객에게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MTS MAU 열위는 간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해외주식 거래의 폭발적 성장으로 개인 리테일 고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토스증권·메리츠증권 같은 파괴적 경쟁자들이 수수료 무료 전략으로 젊은 고객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Open API와 AIR 같은 기술 자산을 활용하여 MTS의 차별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IT/디지털/데이터 직무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2-3. AI 혁신 경쟁에서의 포지셔닝

금융위원회의 AI 혁신금융서비스 초기 지정에서 KB증권(3건),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선정된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초기 지정에서 빠졌습니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AI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AI 서비스를 혁신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디지털·데이터

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규제 경로보다 자체 플랫폼(AIR, MY AI, Open API) 중심으로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IR는 2020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출시된 AI 리서치 서비스로, 매일 3만 건 이상의 뉴스를 NLP 기반으로 분석하여 종목별 자동 리포트를 생성하며, 관련 특허 5건을 출원했습니다. MY AI는 1.3억 회 시뮬레이션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입니다. 다만 KB증권의 Stock AI처럼 양방향 생성형 AI 서비스를 아직 본격 출시하지 않은 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공식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2-4. 최근 6개월 핵심 이슈: 한국투자증권의 행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한국투자증권은 전례 없는 속도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MA(종합투자계좌) 1호 사업자 인가가 2025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공동으로 최초 인가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자기자본의 300%(약 33조 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A는 기존 발행 여음(자기자본 200%까지)을 넘어서는 대규모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 자금을 기업금융·혁신투자 등에 운용하여 운용수익을 창출합니다. IMA S1 상품은 2025년 12월 18일 온라인 판매 개시 당일 2,000억 원을 초과 모집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의 브랜드 신뢰도와 디지털 판매 채널의 효율성을 동시에 입증한 사례입니다.

2025년 12월 19일에는 대규모 조직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Portfolio Management그룹이 신설되었고, 아시아 사업 담당·채권상품 담당 등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Beyond Boundaries" 전략의 실행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빗썸과 자산관리 MOU를 체결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초고액자산가 서비스를 교차 제공하는 이 협업은,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를 넘는 시도입니다. 골드만삭스 미국 테크펀드 출시 첫날 2,160억 원 모집은 글로벌 파트너십의 실행력을 입증했으며, 이러한 글로벌 상품의 성공적 론칭 뒤에는 IT/디지털팀의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연동 역량이 있었습니다.

2-5.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한국투자증권의 포지셔닝을 경쟁사와 비교할 때, 지원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자본력 1위 + 개방형 기술 플랫폼"이라는 조합이 업계에서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KB증권은 AI에, 삼성증권은 UX에, 미래에셋은 글로벌에 강하지만, 자기자본 1위의 자금 조달력과 Open API·AIR 같은 개방형 기술 자산을 동시에 보유한 곳은 한국투자증권 뿐입니다. 면접에서 "왜 다른 증권사가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차별화된 조합과 자신의 역량·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장. 한국투자증권 심층 분석

3-1. 한국투자금융그룹의 구조와 증권사의 위치

한국투자금융지주(종목코드 071050)는 국내 유일의 투자은행(IB) 중심 금융지주입니다. 이 점이 KB금융지주·NH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 등 은행업 기반 금융지주와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은행 기반 지주의 증권 자회사(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는 모회사인 은행의 고객 기반과 브랜드 파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그 자체가 그룹의 핵심 사업이자 실적 견인차입니다.

그룹 산하에는 11개 이상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을 필두로, 한국투자신탁운용(자산운용),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국투자파트너스(벤처캐피탈),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한국투자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디지털·데이터

엑셀러레이터, KIS Holdings(해외 지주), 카카오페이증권(지분 참여) 등이 계열사를 구성합니다. 증권·자산운용·저축은행·캐피탈·부동산신탁·VC·PEF·헤지펀드를 아우르는 이 구조는 투자은행 비즈니스의 전체 가치사슬을 그룹 내에서 완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지주 연결 순이익 9,995억 원의 대부분을 한국투자증권이 기여했습니다. 그룹의 중장기 목표는 2030년까지 ROE 15% 이상, 자기자본 15조 원 이상, PBR 1.0배 이상입니다. 김성환 대표는 2026년 신년사에서 일본 노무라증권을 벤치마크로 언급하며 "아시아 No.1 증권사"를 공언했고,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자기자본 확충·해외 거점 확대·IMA 활용이라는 구체적 실행 계획에 기반한 선언입니다.

3-2. 수익 구조: 운용 부문이 절반에 가까운 독특한 포트폴리오

한국투자증권의 수익 구조는 경쟁사와 뚜렷이 구별됩니다. 2025년 상반기 순영업수익 기준으로 운용(Trading) 부문이 약 46.3%를 차지합니다. IB 부문(PF·M&A 포함)이 약 25%, 투자중개(브로커리지 + 이자수익)가 약 23%, 자산관리(WM)가 약 5%입니다. 운용 부문의 압도적 비중은 발행어음 잔고 17.6조 원(자기자본의 약 180%)을 공격적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발행어음은 종투사만 발행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고객에게 은행 예금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증권사는 이 자금을 채권·대체투자 등에 운용하여 마진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이 수익 구조가 IT/디지털/데이터 직무에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17.6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투자 의사결정, 리스크 모니터링,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필수적이며, 이 모든 과정에 데이터 분석·ML 모델이 투입됩니다. 또한 IMA 도입으로 운용 가능 자금이 자기자본의 300%(약 33조 원)까지 확대되면, 더욱 정교한 데이터 분석 체계가 요구될 것입니다.

2025년 연간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2~3조 원 가시권에 진입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증권업계 최초 영업이익·순이익 동시 1조 원 돌파를 달성했고, 2025년 연간으로는 증권사 최초 2조 원 순이익 달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2026년 한국투자증권의 영업이익 3조 원 가시권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3-3. "Beyond Boundaries" 전략의 세 가지 경계 허물기

2026년 경영방침 "Beyond Boundaries"는 세 가지 경계를 동시에 넘겠다는 선언입니다.

첫째, 자본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IMA와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업금융·혁신투자에 본격 투입합니다. 자기자본 11.16조 원 × 300%는 약 33.5조 원의 운용 재원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 증권사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이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모델링이 필수적이며, 이것이 데이터 직무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직접적 이유입니다.

둘째, 국경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11개 해외 거점(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호치민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확대하고, 해외상품 판매를 2025년 5.4조 원에서 2030년 60조 원으로 11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해외 자산 비중도 17%에서 30%까지 높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시장 데이터 분석, 크로스보더 거래 시스템 구축, 다국어 고객 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이 필요하며, 디지털/데이터 역량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영역입니다.

셋째, 업(業)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금융 라이선스를 가진 테크 기업"으로 변신한다는 비전입니다. 이는 AI·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발굴, 전사 디지털화,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포함합니다. Open API를 통해 외부 개발자·핀테크 기업과 생태계를 만들고, AIR·MY AI 같은 AI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전사적으로 데이터 문화를 확산시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디지털·데이터

키는 것이 구체적 실행 과제입니다.

이 전략의 중장기 정량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자산 잔고는 2025년 76.1조 원에서 2030년 200조 원으로 2.6배 확대, 글로벌 상품 비중은 17%에서 30%로, 해외상품 판매는 5.4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11배 확대가 목표입니다.

3-4. 디지털/IT 전략의 3개 레이어

한국투자증권의 디지털 전략은 데이터·AI 레이어, 플랫폼 레이어, 조직 레이어의 세 층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AI 레이어의 핵심은 AIR와 MY AI입니다. AIR는 2020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출시된 AI 리서치 서비스로, 매일 3만 건 이상의 뉴스를 수집하여 자연어처리(NLP) 기반으로 분석하고, 종목별 투자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서비스는 리서치본부의 10만 건 이상 원본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학습하여 만들어졌으며, 관련 특허 5건이 출원되었습니다. MY AI는 1.3억 회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로,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랩(Wrap) 상품을 추천합니다. 전사적으로는 파이썬 경진대회를 연례 행사로 운영하고, Tableau-SQL 교육을 전 직원에게 제공하며, 신입사원 교육 과정에 AI·데이터 실습을 필수 포함시키는 등 데이터 문화 확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레이어의 핵심은 KIS Developers(Open API)입니다. 2022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REST 방식의 Open API를 개방하여, 외부 개발자와 핀테크 기업이 한국투자증권의 주문·시세·계좌조회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GitHub에 오픈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으며, ChatGPT·Claude 같은 대형언어모델(LLM)과의 연동 트레이딩, 전략 백테스트, 자동매매 시스템 구축까지 지원합니다. KIS Developers는 한국투자증권의 기술 개방성을 상징하는 자산이며, "우리의 인프라를 개방하여 생태계를 만든다"는 플랫폼 전략의 핵심입니다. 미니스탁(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과 모이다(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이 플랫폼 전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조직 레이어를 보면, 디지털본부는 기존의 DT본부와 IT본부가 합병된 통합 조직으로, IT·DT·정보보호를 포괄하며 약 300명 규모입니다. 이는 전사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증권사 IT 조직으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디지털혁신본부장(김관식)은 KAIST 출신으로 삼성SDS와 삼성증권에서 경력을 쌓은 기술 전문가이며, AI 서비스와 디지털 전략을 총괄합니다. 별도로 플랫폼본부가 존재하여 MTS·HTS 같은 고객 접점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이 이원 구조는 내부 데이터 인프라(디지털본부)와 외부 고객 서비스(플랫폼본부)를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설계입니다.

3-5. 리스크 요인: 빛과 그림자

한국투자증권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발행어음 만기 미스매치(maturity mismatch)입니다. 발행어음은 주로 1~6개월 만기의 단기 상품이지만, 이 자금이 투입되는 운용 자산(부동산PF, 장기채권, 대체투자 등)은 1~5년의 장기 만기를 갖습니다. KIS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비매칭차입부채 비중이 2020년 23.3%에서 2025년 36.6%로 상승했고, 자기자본 대비 약 2.8배 수준입니다. 금리 급등이나 시장 불안 시 발행어음 만기 연장(롤오버)이 어려워지면 유동성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자본 대비 약 42%가 부동산금융에 노출되어 있고, 그중 중후순위 PF 비중이 41%에 달합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들어 부동산PF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한국투자증권의 자본 버퍼가 충분하여 당장의 재무 건전성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디지털·데이터

MTS 점유율 열위와 AI 혁신금융서비스 미지정도 디지털 경쟁력 측면의 과제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약점이지만, 동시에 IT/디지털/데이터 인력이 들어가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3-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한국투자증권은 "돈은 많지만 기술은 아직 만들어가는 중"인 회사가 아닙니다. Open API·AIR·MY AI 등 이미 상당한 기술 자산을 구축했지만, "Beyond Boundaries" 전략의 규모와 속도를 감당하려면 데이터/AI 역량의 양적·질적 확대가 절실한 회사입니다. 면접에서 이 회사의 현재 위치와 미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IMA·발행어음·AIR·Open API 같은 고유 자산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MTS MAU 열위나 만기 미스매치 같은 리스크 요인까지 인지하고 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점만 나열하는 지원자"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지원자"가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4-1. 공식 인재상 4대 키워드의 실제 의미

한국투자증권의 공식 인재상은 열정, 도전정신, 전문역량, 변화주도의 네 가지입니다. 그룹 차원의 핵심가치는 신뢰(Integrity)·감동(Impression)·도전(Innovation)이며, 행동규범으로 "원칙을 소중히, 작은 것도 소중히, 새로운 것을 과감히"가 제시됩니다. 이 키워드들은 모든 대기업에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한국투자증권의 맥락에서 각각 구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열정은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조직의 업무 강도와 직결됩니다. 증권업은 시장이 열리는 한 쉬지 않는 산업이며, 특히 해외주식 거래가 폭증하면서 거래 시간이 사실상 24시간에 가깝게 확장되었습니다. IT/디지털 직무는 시스템 장애 대응, 새벽 배치 작업, 규제 변경에 따른 긴급 시스템 수정 등으로 근무 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키워드는 이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근성과 욕심, 그리고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내적 동기"를 의미합니다.

도전정신은 한국투자증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격을 반영합니다. IMA는 국내 증권업 역사상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STO는 아직 법률조차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영역이며, Open API를 통한 생태계 구축은 한국 증권업에서 선례가 없는 시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일하는 사람"보다 "전례가 없어도 직접 길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전정신은 곧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tolerance for ambiguity)과 실행력입니다.

전문역량은 IT/디지털/데이터 직무에서 특히 구체적으로 해석됩니다. Python·SQL·ML/DL 같은 기술적 깊이는 기본이며, 그 위에 금융 도메인 지식(주식·채권·파생상품의 구조, KRX 체결·결제 원리,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을 결합하는 T자형 역량을 의미합니다. 다만 신입 수준에서 금융 도메인 지식을 깊이 요구하지는 않으며, "학습 의지와 관심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전문역량의 핵심은 "코딩을 할 줄 아는가"가 아니라 "데이터로 비즈니스 문제를 풀 수 있는가"입니다.

변화주도는 한국투자증권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문화 확산과 관련됩니다. 전사 파이썬 경진대회, Tableau·SQL 교육, 신입사원 AI 실습 과정 등은 모두 "현업 부서가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하게 만드는" 변화 프로젝트입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즉 리서치팀에게 SQL을 가르치고, PB팀에게 Tableau 대시보드를 만들어주고, 트레이딩 데스크에 ML 모델을 제안하는 사람이 이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잘하는 것을 넘어, 기술을 조직에 전파하는 역할까지 기대된다는 뜻입니다.

4-2. 김남구 회장의 인재관: "스펙보다 다양성과 의외성"

한국투자증권의 채용 문화를 이해하려면 김남구 회장(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의 인재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김남구 회장은 20년 연속 신입사원 채용설명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국내 대형 금융사 총수 중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가 채용설명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획일화된 스펙이 아닌 다양성과 의외성",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한 Good People보다 회사와 맞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를 IT/디지털/데이터 직무에 적용하면, 단순히 기술 스택을 나열하는 자기소개서보다 "왜 증권IT인가, 왜 한국투자증권인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서사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Open API를 활용해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스펙보다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AIR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해보고 그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외성"이자 "회사와 맞는 사람"의 증거가 됩니다.

4-3. 조직문화: 성과주의 + 높은 보상 + 높은 강도의 삼중주

한국투자증권의 조직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과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하지만, 그만큼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조직"입니다. 캐치(CATCH) 플랫폼의 73명 직원 설문 결과를 보면, 급여·복지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1점으로 높고, 워라밸과 커리어 성장 가능성도 각각 3.9점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 2,901만 원으로 업계 2위 수준이며, 성과급 300% 이상 응답자가 37%에 달합니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이 직원 보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반면 업무 강도가 높다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증권업 특유의 시장 연동 업무 리듬, 장애 대응의 긴장감, 분기별 실적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IT 조직은 증권사 내에서 상대적으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문화를 가진 편이지만, 전통적 금융사의 보수적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경력직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 전환하는 구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다는 것이 직장 후기에서 드러납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직원 동기부여가 과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벨(TheBeLL)의 보도에 따르면, 급격한 실적 성장에 비해 조직 확대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존 인력의 업무 부하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는 역으로 신입 채용에서 즉전력(即戰力)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4-4. 금융IT 디지털/데이터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DNA

증권사 IT/디지털/데이터 직무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인재는 업종과 직무의 특성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공통된 특성을 공유합니다. 이는 채용 공고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실제 업무 현장에서 높이 평가되는 역량들입니다.

첫째, 비즈니스-기술 가교(Bridge) 역량입니다. 증권사의 데이터 직무는 순수 기술직이 아닙니다. 트레이더가 "최근 거래 패턴이 이상한 것 같은데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문제로 전환하고(문제 정의), 적절한 분석 방법을 선택하며(방법론 설계), 결과를 트레이더가 행동할 수 있는 인사이트로 번역해야(커뮤니케이션) 합니다. PB가 "고객자산가 이탈이 늘고 있다"고 우려하면, 이탈의 정의부터 합의하고, 이탈 예측 모델을 구축하며, 리텐션 전략을 제안해야 합니다. IB팀이 "이 딜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산출해달라"고 요청하면, 과거 유사 딜의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디지털혁신본부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조직의 본질적 업무는 "데이터를 수집·추출하여 분석·가공한 뒤 현업 사업부에 소싱하는 것"입니다.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하는 과정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디지털·데이터

둘째, 장애 대응과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특성은 금융IT 도메인의 업무 특성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됩니다. 증권사 전산장애 민원이 전체 금융IT 민원의 54.6%를 차지할 만큼, 시스템 안정성은 고객 자산 보호와 직결됩니다. 2022년 한국투자증권 서버 다운 사례에서 보듯, 1분의 장애가 수십억 원의 거래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개장 시간(08:30~15:30)과 넥스트레이드 확장 거래시간(08:00~20:00)에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IT에서는 "99.9% 가동률"이 아니라 "99.99% 가동률"을 목표로 하며, 장애 발생 시 15분 이내 복구라는 엄격한 SLA가 적용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안정적 운영, 배치 작업의 무결점 실행, 이상 탐지의 신속한 대응이 일상적 업무의 핵심입니다.

셋째, 규제 민감도와 컴플라이언스 DNA입니다. 금융업은 전 산업 중 가장 규제가 촘촘한 업종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보안원 IT 안정성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위원회 AI 가이드라인,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감시 규정 등이 IT 시스템 설계와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터 직무 담당자는 단순히 이 규제들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왜 이 규제가 존재하는가"를 이해하고 기술적 대응 방안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모델이 투자 추천을 할 때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객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등이 실무적 과제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전사 파이썬 경진대회를 운영하면서도 AI 서비스에 XAI(설명 가능한 AI) 검토를 필수화하는 것은 이 규제 환경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습관입니다. 이것은 기술적 역량이라기보다 사고방식(mindset)에 가깝습니다. "감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한계까지 인식하는 역량"이 핵심입니다. 증권업은 전통적으로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문화가 강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전사 파이썬 경진대회, Tableau 교육, SQL 교육 등을 통해 이 문화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직무 담당자는 이 전환의 선봉장 역할을 합니다. 경영진에게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PB에게 고객 분석 인사이트를 전달하며, 트레이딩 데스크에 시장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도구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문화의 전파"입니다.

다섯째,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인내와 점진적 개선 역량입니다. 금융IT의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됩니다. 레거시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신규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AI 모델의 점진적 고도화 등은 모두 장기 호흡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꾸준히 코드 품질을 개선하고,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며, 모델 성능을 조금씩 향상시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빠른 실행"과는 다른 종류의 역량이며, 금융IT 도메인이 요구하는 독특한 업무 특성입니다.

4-5.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인재상과 조직문화를 종합하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기술 스택 나열"이 아니라 "경험 기반 서사"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비기술 부서와 협업하여 인사이트를 전달한 경험이 있다면, 이는 비즈니스-기술 가교 역량을 입증합니다. 시스템 장애를 경험하고 이를 해결한 과정이 있다면, 안정성에 대한 감각을 보여줍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기술을 모르는 동료에게 데이터 도구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면, 변화주도 역량을 증명합니다. 김남구 회장이 강조하는 "다양성과 의외성"은 결국 "남들과 다른 경험에서 추출한 고유한 통찰"을 의미하며, 이를 한국투자증권의 구체적 사업(Open API, AIR, IMA, STO 등)과 연결할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지원 전략이 됩니다.

5장. IT/Digital 디지털·데이터 직무 분석

5-1. 조직 내 위치와 핵심 미션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디지털·데이터

FY2026 채용연계형 인턴 공채에서 IT/Digital_디지털/데이터 트랙은 디지털본부의 데이터팀과 디지털전략기획팀을 커버하는 통합 포지션입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공식 직무 정의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전사 데이터 분석 과제 기획·발굴을 통한 Biz Insight 도출입니다. 둘째, ML/DL 활용 모델 구축 및 고도화입니다. 셋째, 기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신규 지표 개발입니다.

이 직무 정의를 풀어서 해석하면,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라 "내부 데이터 컨설턴트"에 가까운 역할입니다. 리서치본부·트레이딩 데스크·PB·IB·리스크관리·경영기획 등 전사 각 부서의 데이터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분석 과제를 기획하며,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하여 각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소싱하는 것이 본질적 업무입니다. 비즈워치 인터뷰에서 한국투자증권 디지털혁신본부 관계자는 "2019년 DT본부를 만들 때부터 '직원들의 업무환경과 고객 대상 서비스를 설계하는 곳'으로 정의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비즈니스 가치 중심의 조직 철학을 보여줍니다.

디지털본부는 2019년 DT본부로 출발하여 이후 IT본부와 합병된 통합 조직입니다. IT 인프라 운영·보안·시스템 개발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조직이며, 그 안에서 데이터팀은 전사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 구축을, 디지털전략기획팀은 디지털 사업 기획과 프로세스 혁신을 각각 담당합니다. 이 두 팀이 통합 트랙으로 채용되는 것은, 입사 후 적성과 역량에 따라 배치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2. 시간축별 업무 사이클: 하루/한 달/1년의 리듬

IT/디지털/데이터 직무의 업무를 시간축별로 이해하면, 이 직무가 일상적으로 어떤 리듬으로 돌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 단위 업무를 보면,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모니터링입니다. Airflow 등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통해 전일 밤과 새벽에 실행된 배치 작업의 성공·실패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장 데이터, 고객 거래 로그, 앱 사용 로그 등이 정상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합니다. 이후에는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ad-hoc(임시) 분석 요청에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리서치팀이 "지난주 특정 섹터의 개인 투자자 매매 패턴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하면, SQL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Python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전달합니다. AIR, MY AI 같은 AI 서비스의 모델 성능을 추적하는 것도 일상적 업무입니다. 추천 종목의 사후 수익률, NLP 모델의 감성분석 정확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성능 저하가 감지되면 원인 분석에 착수합니다. 대시보드 업데이트도 매일 이루어지며, 경영진과 주요 부서에 제공되는 일간 리포트의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월·분기 단위 업무는 보다 전략적 성격을 띠니다. 전사 데이터 분석 과제 기획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각 부서의 데이터 수요를 취합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ML 모델의 재학습과 고도화가 이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시장 환경이 변하면(예: 새로운 섹터의 부상, 거시경제 패러다임 전환)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하이퍼파라미터를 재튜닝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규제 보고용 데이터 생성과 검증도 월·분기 단위로 수행됩니다. KPI 리뷰 및 성과 보고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데이터 정합성 비율, 파이프라인 SLA 준수율, 분석 과제 완료율 등을 점검합니다. 신규 지표 개발과 A/B 테스트 결과 기반 서비스 개선도 이 주기에서 진행됩니다.

연 단위 업무는 전략적·구조적 과제 중심입니다. CEO 경영방침("Beyond Boundaries")과 연계된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연간 데이터/AI 프로젝트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대규모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예: 레거시 DW에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레이크로 전환)가 연 단위로 기획·실행됩니다. AI One Team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전사 파이선 경진대회 운영, 데이터 활용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도 연 단위 과제입니다. 정보보호 감사 대응과 IT 내부통제 검증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금감원 IT검사 대비 자료 준비도 중요한 연례 업무입니다.

5-3. 이해관계자 맵: 안팎으로 연결된 허브 역할

IT/디지털/데이터 직무는 조직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시 협업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이 이해관계자 맵을 이해하는 것은 직무의 본질을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내부 이해관계자를 살펴보면, 트레이딩 데스크와는 시장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트레이딩 지원, 포지션 분석 등에서 협업합니다. 트레이더들이 실시간으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 피드와 분석 도구를 제공하며, 자동매매 전략의 백테스트를 지원합니다. 리서치본부와는 AIR 서비스의 데이터 학습과 리포트 품질 관리에서 밀접하게 일합니다. 리서치 애널리스트의 10만 건 이상 원본 리포트를 ML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며, AI가 생성한 리포트의 정확성을 리서치팀과 함께 검증합니다. 리스크관리 부서와는 포트폴리오 리스크 지표 산출, VaR(Value at Risk) 모델 구축,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등에서 협업합니다. 발행어음·IMA로 운영하는 17~33조 원 규모의 자금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이 특히 중요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부서와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 제공, 규제 보고 데이터 생성, AI 서비스의 규제 준수 검증 등에서 협력합니다. 개인고객그룹(PB)과는 고객 세그멘테이션, 이탈 예측, 맞춤형 상품 추천 모델 등에서 일하며, WM 서비스의 디지털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IB·법인 영업 부서와는 기업 데이터 가공, 딜 파이프라인 분석, 밸류에이션 지원 등에서 협업합니다. 경영진에게는 전사 Data-driven 의사결정 대시보드를 제공하며, CEO·CFO·CRO가 필요로 하는 핵심 경영지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규제 보고 데이터를 제출하고, AI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로부터 시장 데이터를 수신하고, 코스콤(KOSCOM)의 금융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LSEG(런던증권거래소그룹)와 Bloomberg로부터 글로벌 금융 데이터 피드를 받아 분석합니다. AWS나 GCP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와는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에서 협업하며, 핀테크 파트너사와는 로보어드바이저 연동, Open API 생태계 관리 등에서 접점을 유지합니다.

5-4. 요구 역량의 3차원 프레임워크

IT/디지털/데이터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기술 역량, 도메인 지식, 소프트 스킬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술 역량의 양대 축은 Python과 SQL입니다. 이 두 가지는 채용공고에서도 필수 역량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면접에서도 직접 코딩 역량을 검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ython은 데이터 분석(Pandas, NumPy), 시각화(Matplotlib, Seaborn), ML/DL 모델링(Scikit-learn, TensorFlow, PyTorch), 자연어처리(NLTK, KoNLPy, Transformers), 웹 크롤링(BeautifulSoup, Scrapy) 등 데이터 업무의 전 범위를 커버합니다. SQL은 대규모 금융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데 필수적이며, 복잡한 JOIN·서브쿼리·윈도우 함수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반 위에 데이터 시각화 도구로 Tableau가 활용되며, 파이프라인 오케스트레이션에는 Airflow,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에는 Kafka가 사용됩니다. 컨테이너 기반 배포를 위한 Docker와 Kubernetes 경험도 우대됩니다. ETL/ELT 파이프라인 설계,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데이터 모델링(Star Schema, Snowflake Schema) 경험이 있으면 강점이 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금융권 규제 범위 내에서 AWS, GCP 등) 경험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으로는 정보처리기사, SQLD(SQL 개발자), AD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 빅데이터분석기사, AWS Certified Solutions Architect 등이 가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도메인 지식 측면에서는 주식·채권·ETF·파생상품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KRX의 호가·체결·결제(T+2) 원리, 증거금 제도, 반대매매 규정 등 거래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과 금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디지털·데이터

용보안원의 IT 안정성 가이드라인, 마이데이터·오픈뱅킹·STO 제도의 골격을 파악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면접 합격 후기들을 종합하면, 신입 수준에서 금융 도메인 지식의 깊이를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 의지와 관심도", 즉 "금융 도메인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잠재력"이 더 높이 평가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AIR 서비스나 Open API를 직접 사용해보고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금융 도메인에 대한 관심도를 자연스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스킬은 금융IT 도메인에서 기술 역량만큼이나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비기술 부서(트레이딩, PB, IB, 경영진)에 분석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의 인사이트로 번역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술을 아는 컨설턴트"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문제 정의(Problem Framing) 능력도 핵심입니다. 현업 부서가 모호하게 던지는 요청("매출이 왜 떨어졌는지 알아봐달라")을 구체적이고 분석 가능한 데이터 문제("A 세그먼트 고객의 분기 거래량이 전 분기 대비 15% 감소한 원인을 고객 특성별로 분해하여 분석")로 재정의하는 역량입니다. 다부서 협업 능력도 중요합니다. 앞서 이해관계자 맵에서 보았듯이, 데이터 직무는 리서치·트레이딩·영업·리스크·컴플라이언스·경영진 등 거의 모든 부서와 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5-5. 성과 지표(KPI)와 평가 포인트

데이터 직무의 성과는 정량적 KPI와 정성적 평가의 조합으로 측정됩니다.

정량적 KPI로는 데이터 정합성 비율이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측정하며, 99.x%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금융 데이터의 경우 1건의 오류가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이나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높은 정합성이 요구됩니다. 파이프라인 SLA 준수율은 배치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되는 비율이며, 시장 개장 전까지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하는 금융업 특성상 매우 중요합니다. 분기별 Biz Insight 과제 완료율과 현업 채택률은 데이터 분석이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기여했는지를 측정합니다. ML 모델 정확도 개선율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모델을 재학습시킨 후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데이터 시스템 가용률은 99.9% 이상을 목표로 하며, 프로젝트 일정 준수율도 중요한 KPI입니다.

정성적 평가 포인트로는 신규 분석 방법론 도입 건수가 있습니다. AIR 관련 5개 특허 출원이 벤치마크이며, 새로운 ML 기법이나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조직에 도입하는 것이 높이 평가됩니다. 현업 부서 만족도도 정성적으로 측정되며,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각 부서의 피드백이 반영됩니다. 감독당국 IT검사 무결점 대응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며, 전사 데이터 문화 확산에 대한 기여도(교육 운영, 경진대회 참여 등)도 고려됩니다.

5-6. 대표 업무 시나리오: 실제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된다

시나리오 A는 고객 이탈 예측 시스템 구축입니다. PB 부서로부터 "최근 고객자산가 이탈이 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주차에는 PB팀과 이탈의 정의를 합의합니다. "90일 연속 미거래 + 잔고 50% 이상 감소"를 이탈로 정의하고, 분석 범위와 활용 방안을 협의합니다. 2~3주차에는 데이터 마트를 설계합니다. 계좌 정보, 거래 이력, 앱 로그인·사용 로그, PB 상담 이력, 상품 보유 현황 등을 조인하여 분석용 데이터셋을 구축합니다. 4~6주차에는 XGBoost 또는 LightGBM 기반의 이탈 예측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Feature engineering에서 고객의 거래 빈도 변화 추이, 로그인 패턴 변화, 보유 상품 다양성, 경쟁사 MTS 설치 여부 등을 피쳐로 활용합니다. 모델 성능을 AUC-ROC, Precision-Recall 등으로 평가하고, SHAP 값을 통해 각 피쳐의 영향도를 분석하여 모델의 설명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7~8주차에는 Tableau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이탈 위험 고객 리스트를 시각화하고, PB가 일간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9~10주차에는 이탈 위험 고객에게 개인화된 리텐션 오퍼(금리 우대, 수수료 할인, 전용 상품 추천 등)를 자동 발송하는 파이프라인을 연동합니다. 전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디지털·데이터

체 사이클은 약 8~10주이며, 이후에는 월간 단위로 모델을 재학습하고 리텐션 효과를 측정합니다.

시나리오 B는 AIR 서비스 파이프라인 고도화입니다. AIR는 매일 3만 건 이상의 뉴스를 수집하여 NLP 기반으로 분석하고, 종목별 자동 리포트를 생성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고도화는 분기별 사이클로 진행됩니다. 분기 시작 시 지난 분기의 추천 종목 사후 수익률을 백테스트하여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새로운 뉴스 패턴(예: 2025~2026년에는 AI반도체, 우주항공, ESG 등)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고, NLP 모델을 재학습시킵니다. 감성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금융 특화 임베딩을 업데이트하고, 리서치 애널리스트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리포트 템플릿을 개선합니다. 금융위 AI 가이드라인에 따른 XAI(설명 가능한 AI) 검토도 분기별로 수행하며, 모델이 특정 종목을 추천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 로직을 고도화합니다.

시나리오 C는 규제 보고 자동화 프로젝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IT 안정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제 보고서의 데이터 생성을 자동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준법감시부서 및 IT감사팀과 보고 양식을 정의하고, 거래 시스템 원장, 시장 데이터, 고객 정보 등 소스 시스템을 매핑합니다. Airflow와 SQL과 Python을 결합하여 일별·월별 데이터 마트를 자동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크로스체크와 이상값 탐지 로직을 구현하여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고, 감사 증거(audit trail)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술적 구현 자체보다, 규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데이터 요건으로 번역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 민감도와 컴플라이언스 DNA"가 실무에서 발현되는 지점입니다.

5-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직무 분석을 종합하면, 면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내가 이 조직에 들어가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시나리오처럼 문제 정의 → 데이터 설계 → 모델링 → 시각화 → 비즈니스 적용의 전 과정을 경험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을 한국투자증권의 맥락(AIR 고도화, 고객 이탈 예측, 규제 보고 자동화 등)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설명하는 것이 강력한 접근법입니다. 또한 Open API(KIS Developers)를 활용한 개인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이는 "한국투자증권의 기술 자산을 이미 사용해본 지원자"라는 극히 드문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김남구 회장이 강조하는 "의외성"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의 성공을 가르는 가장 본질적인 역량은 "기술을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Python을 잘 쓰는 것은 시작일 뿐이며, 그 기술로 트레이더의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PB의 고객 관리를 돕고, 경영진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Beyond Boundaries" 전략의 실체는 결국 기존 방식을 데이터와 기술로 대체하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전사 파이썬 경진대회를 만들고, 현업 부서가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하게 만들고, AI 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종류의 주도성이 이 조직이 원하는 것입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 굿모닝경제 —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 2026 신년사 —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907>
- 아주경제 —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아시아 넘버원" 인터뷰 — <https://www.ajunews.com/view/20260102135827603>
- 비즈워치 — 한국투자증권 디지털혁신본부 인터뷰 —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3/02/23/0036>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디지털·데이터

4. 자소설닷컴 — 한국투자증권 FY2026 채용공고 — <https://jasoseol.com/recruit/103399>
5. 대한금융신문 — 2025년 1분기 증권사 자기자본 현황 —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50>
6. 전자신문 — 증권사 디지털 전환 가속(지점 258곳·대행인 3,300명 감소) — <https://www.etnews.com/20250701000267>
7. 다음 뉴스 — 증권사 지점 700개 붕괴, 디지털 전환 가속화 — <https://v.daum.net/v/20250406143403624>
8. DealSite경제TV — 증권사 MTS 경쟁 현황 — <https://news.dealsitetv.com/articles/123549>
9. 네이트 뉴스 — 주요 증권사 MTS 경쟁(키움 1위, 삼성 추격) — <https://news.nate.com/view/20250110n03869>
10. 뉴스톱 — 국내 증권사 AI·핀테크 혁신 칼럼 — <https://www.newsto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13>
11. Goover AI 리포트 — 증권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AI-STO) — <https://seo.goover.ai/report/202505/go-public-report-ko-3f300811-e302-4569-9e74-db9b5f986008-0-0.html>
12. 다음 뉴스 — 증권사 AI로 '투자 격차' 줄인다 — <https://v.daum.net/v/20251005155022171>
13. 자본시장연구원(KCMI) — 금융권 AI 활용 확대와 감독 방향 —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year=2025&zcd=002001016&zno=1846&cno=6537
14. 키움증권 리서치 — 국내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추진 현황 — <https://bbn.kiwoom.com/rfBC1351>
15. 헤럴드경제 — 2025년 증권사 STO 신사업 전망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382505>
16. 인베스트조선 — STO 발행 준비 마친 증권사들 —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9/26/2025092680112.html
17. 토스뱅크 — 대체거래소(NXT) 종목 796개 확대 — <https://www.tossbank.com/articles/ATS>
18. 금융보안원 — 클라우드·AI 관련 가이드라인 — <https://www.fsec.or.kr/bbs/detail?menuNo=222&bbsNo=11152>
19. 뉴데일리 — 증권사 AI 투자 경쟁 현황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9/01/2025090100253.html>
20. 대한금융신문 — 증권사 AI 혁신전쟁(KB 1강, 미래·NH·삼성·신한 4중) —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31>
21. 이코노믹데일리 — 증권사 AI 개발 총력전 — <https://www.economidaily.com/view/20250212084803855>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디지털·데이터

22. 경기일보	—	미래에셋·한국투자	IMA	1호	지		
정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3580871					
23. KIS Developers	—	한국투자증권	Open	API	개발자센		
터	—	https://apiportal.koreainvestment.com/intro					
24. GitHub	—	한국투자증권	Open Trading API	—	https://github.com/koreainvestment/open-trading-api		
25. 이코노빌	—	한국투자증권	AI	활용	전략(머니엑스		
포)	—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64477					
26. 서울경제	—	한국투자증권	영업이익	3조	원	가시	
권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5EU9759					
27. 이비엔(EBN)뉴스	—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	글로벌	전	
략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593					
28. 한국투자금융지주	—			자회사		소	
개	—	https://www.koreainvestment.com/kr/company/subcompany					
29. 녹색경제신문	—	한국투자증권	연간	2조	이익	달성	전
망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26600					
30. KIS신용평가	—		한국투자증권			Credit	
Opinion(2025.05)	—	https://kisrating.com/fileDown.do?menuCd=R8&gubun=2&fileName=rs20250522-33.pdf					